

# 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 개최

-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위한 적극적 현장 대응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0일(수)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자체는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현장 개입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복지부-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점검 회의 개최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한두희 (044-202-3123)



□ **회의 개요**

- (추진 배경)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및 적극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현황 점검
  - ※ (대통령 훈시사항)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을 탈피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할 것(7.17)
- (일시 및 방식) '25.7.30.(수) 10:00~12:00, 영상회의

□ **참석 대상**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주재),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등
- (지자체) 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과장

□ **회의 안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복지부)
- 지자체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추진 현황(지자체)

□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인사 말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0:05~10:15 ('10)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추진현황	복지부
10:15~11:40 ('80)	■ 지자체 사각지대 발굴 정책 추진현황	17개 시도
11:40~11:55 (15)	■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참석자 전원
11:55~12:00 ('5)	■ 마무리 말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